

요한 계시록의 새로운 이해와 말씀

풍랑을 잔잔케 하실 예수

조동호 저



도서출판 가나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승리자 그리스도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with_home > history >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이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예수 \(kccs.info\)](http://kccs.info/nt27.htm)
<http://kccs.info/nt27.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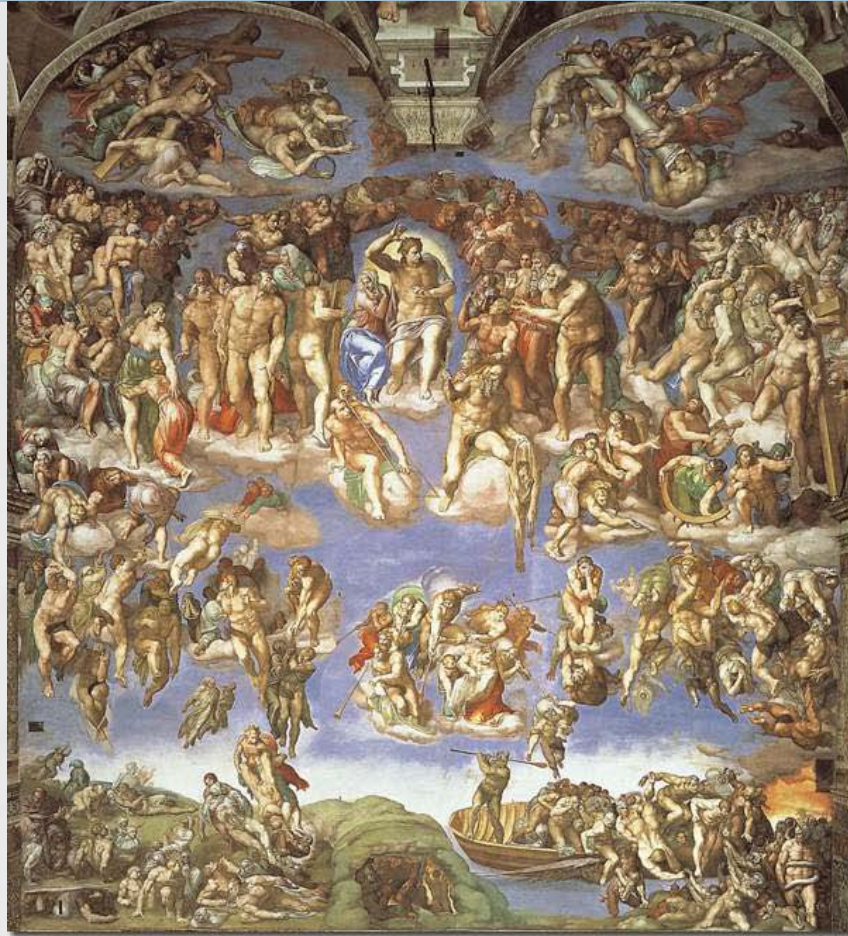
머리말	천상	제1화 (畵) 인자 1:19-20	제2화 (畵) 보좌방 4-5장	제3화 (畵) 큰무리 7장	제4화 (畵) 큰무리 14-15장	제5화 (畵) 중간 계시 10-13장	제6화 (畵) 주의재림 19장	제7화 (畵) 새하늘 과 새땅 21-22 장	맺는말
	지상	일곱 교회 2-3장	일곱인 6장	나팔 재앙 8-9장	대접 재앙 16장	중간 계시 17-18장	천년왕국 20장		

계시록의 구조: 반복과 분리

- 환난은 성도의 인내와 연단과 소망성취를 위한 것이고, 재앙은 박해자들로부터 성도를 구출하려고 적대자들에게 내리는 저주이다. 예: 출애굽사건
- 계시록의 4개의 환상은 사건의 반복과 천상(구원)과 지상(환난과 재앙)으로 분리(Recapitulation)되는 일곱장의 그림들로 설명될 수 있다. 예: 다음의 그림들.



최후의 심판(Stefan Lochner, c. 1435,
 Wallraf-Richartz Museum, Cologne 콜른, 독일
 독자의 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천성으로 들어
 가는 모습이고, 독자의 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시스티나 성당(Sistine chapel)의 제단 벽에 그려진 프레스코 벽화.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가 1536년에
 그리기 시작하여 1541년에 완성한 '최후의 심판'이란 제목의 작품이다.
 *이 그림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층부의 그리스도를 좌우에서 옹위한 인물들은
 사도와 순교자들과 성도들이다. 하층부는 죽음의 세계(음부)로서 그리스도의
 우측(독자의 좌측)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부활하는 모습이고,
 그 위 중간층은 부활한 성도들이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국으로 옮겨지는 모습
 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좌측(독자의 우측) 하층부는 지옥의 모습으로서
 벡터사공 카론이 혼령들을 실어다가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와 마귀들에게
 보내는 모습이고, 그 위 중간층은 천사들의 나팔소리에 이마에 땀이 난
 저승사자들이 지옥으로 보내야 할 사람들을 붙잡아 끌러내리는 모습이다.



INDE VENTVRVS EST IVDICARE VIVOS ET MORTVOS.

M. de Vos inuent.

Adriaen Collaert sculp. et exc.

아드리엔 콜레르트(Adriaen collaert, c. 1560-1618)의 '최후의 심판' 판화. 콜레르트는 플랑드르(Flanders)의 디자이너 겸 판화조각사였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동일한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좌우에 웅위한 인물들은 사도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하층부는 죽음의 세계(음부)로서 그리스도의 우측(독자의 좌측)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부활하여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국으로 옮겨지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좌측(독자의 우측)은 저승사자들에게 붙잡혀 지옥 불에 던져지는 모습이다. 하단 난외에 "그분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INDE VENTVRVS EST IVDICARE VIVOS ET MORTVOS)는 사도신경의 한 소절이 적혀있다.



백년조 심판(William Blake, 1808)

로버트 블레이크의 시 '무덤' (The Grave)에 삽입된 삽화로써
독자의 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천성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독자의 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최후의 심판(Viktor Mikhaylovich Vasnetsov, 1904, 러시아)
독자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천성에 오르는 모습이고, 독자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모습이다.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지옥의 문'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지옥의 문'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우측(독자의 좌측)에는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로,
좌측에는 마귀와 해골과 뼈를 비롯한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을 묘사
하였다. 양쪽 문설주에 새긴 위(천국)를 향하고 있는 인물들과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우측(독자의 좌측)에 조각된 인물들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과 성도들이고, 양쪽 문좌에 새긴 지옥으로 추락하는 인물들과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좌측(독자의 우측)에 조각된 마귀와 해골과
뼈와 함께 한 인물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단테의
<신곡>에 따르면, 저주받은 영혼들은 카론의 바닷없는 소가죽 배에
싣혀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에게 보내지게 되고, 미노스는 그들을 죄값에
따라 분류하여 9개의 등급으로 나뉜 지옥의 계곡들로 보낸다.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지옥의 문'
로댕은 오른쪽(독자의 왼쪽) 문짝에 음모와 탐욕과 배반이
가득한 자들이 가는 제9계곡과 정욕(이색)의 범죈자들이
가는 제2계곡을 묘사하였다. 상단의 조각상은 제9계곡
에서 기아로 고통을 겪는 '우글리노와 그의 자녀들'이고, 하단의
조각상은 제2계곡에서 금지된 사랑에 몰부림치는 시동생
파올로(Paolo)와 형수인 프란체스카(Francesca)이다.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지옥의 문'
로댕은 양쪽 문 상단에 지옥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을 묘사하였고, 왼쪽
(독자의 오른쪽) 문짝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고통의 세계를 묘사한
'허무한 사랑' (Fugit Amor, 도망친 사랑) 등을 조각하였다.

머리말(1:1-11)

1	천상(1:19-20)	인자의 환상/ 능력의 주님, 교회의 머리, 성도의 구세주
	지상(2-3장)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과 권면/ 박해와 고난
2	천상(4-5장)	하늘 보좌 방과 전경/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지상(6장)	일곱 인(역사의 악순환), 고해 같은 세상
3	천상(7장)	이스라엘 자손 중 인 맞은 자 십사만 사천명과 구원받은 큰 무리/ 큰 환난에서 구원
	지상(8-9장; 11:15-19)	일곱 나팔 재앙/ 저주와 심판

4	천상(14-15장)	십사만 사천 명과 심판/ 천국과 지옥
	지상(16장)	일곱 대접 재앙/ 극심한 저주와 심판
5	중간계시 (10-13장)	대 환난/ 목자와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삼년 육개월의 박해와 고난
	중간계시 (17-18장)	대 심판/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6	천상(19장-20: 3)	만 왕의 왕 만주의 주 재림과 심판/두 짐승 이 유향 못에 들어가고 사단이 갇힘
	지상(20:4-15)	천년 왕국과 백 보좌 심판/ 사단이 유향 못 에 들어감
7	천상과 지상 (21:1-22:5)	새 하늘과 새 땅/ 천상과 지상의 통합/영원 한 안식
맺는 말(22:6-21)		



계시록 1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일곱 별과 검은 가지시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서신 "인자 같은 이"를 묘사하였다.



계시록 1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
 에서 만든 것이다.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를 묘사하였다.



에베소

비가르

투아리아

쉬르나

사테

비라델리아

Paul spent 3 years here

에베소

120 Miles (190 km) Colossae to Ephesus

히에라폴리스

There's no record Paul ever came here

라오디게아

글로사

로디아의
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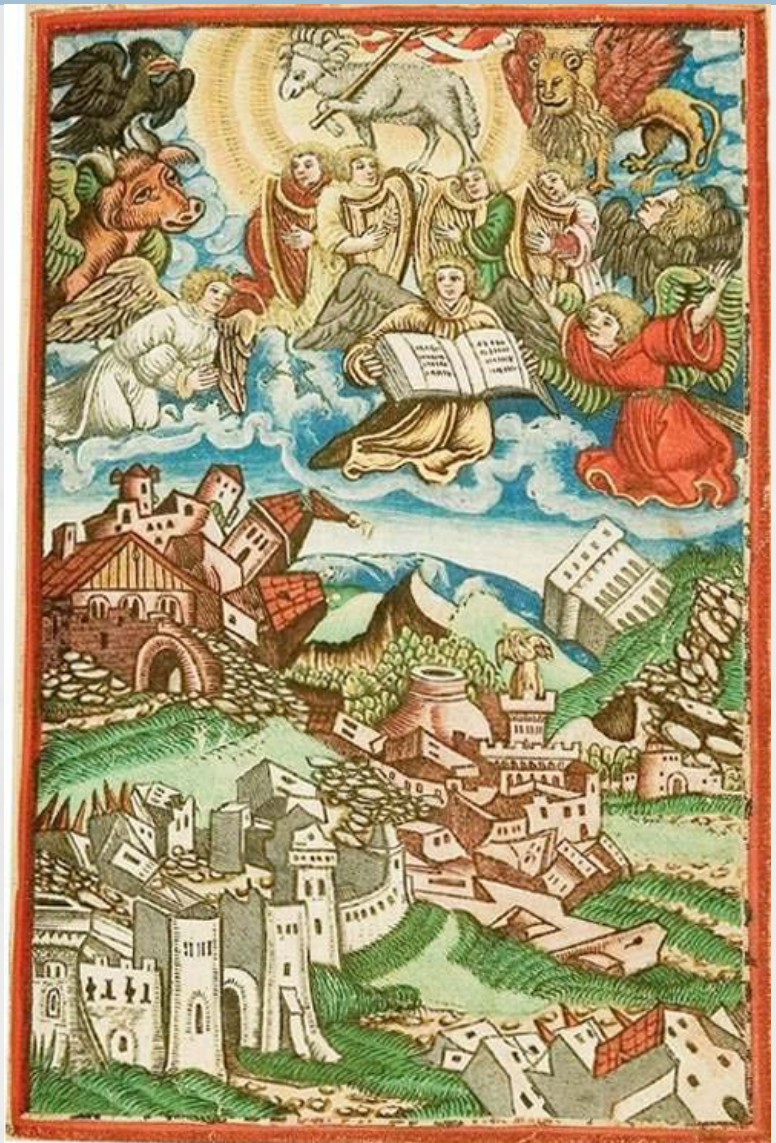




계시록 4-5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보좌상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4-5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이어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보좌좌상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4-5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이어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과 우주만물이 주께 경배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6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이므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6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6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7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천사들과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침을 받은 144,000를 묘사하였다.



계시록 7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천사들과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침을 받은 144,000를 묘사하였다.



계시록 8-9장(Luther의 신약성서, 152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CRANACH, Lucas the Elder의
공방에서 만든 계시록의 삽화 2장 가운데 하나이다. 일곱 나팔
재앙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8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제단 곁에 선 금향로를
가진 천사와 천사들의 네가지 나팔재앙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8장(Otteir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곱 번째 인을 펴낼
때의 고평와 제단 곁에 선 금향로를 가진 천사와 나팔을
반은 일곱 천사들과 네가지 나팔재앙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8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나팔제앙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9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다섯 번째 나팔제앙
 이자 첫 번째 화를 묘사하였다.



계시록 9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9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독일이 성경(Das Neue Testament,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선 힘센 천사가 묘사되었다.



계시록 10장(Ottth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꺾여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선 힘센 천사를 묘사하였다.



계시록 10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퍼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선 힘센 천사를 묘사하였다.



계시록 12장 11-14절 (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성전 축적, 두 증인, 용이 묘사되었다.

Apocalipse.



프랑스 성경(La sainte Bible en Francoys, 1530)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찢아
하는” 요한과 “두 증인” 및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묘사하였다. 16세기의 성당과 사제 복식을 엿볼 수가 있다.



계시록 11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고, 성전 축적, 두 증인,
뱀이 묘사되었다.



계시록 12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발 아래에 달을,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해를 입은 여인과 일곱 머리
열 뱀과 일곱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을 묘사하였다.



프랑스 성경(La sainte Bible en Francoys, 1530)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쓴”
여인과 일곱 머리 열 뱀에 일곱 왕관을 쓴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가 땅에 던지는 모습과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12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발 아래에 달을,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해를 입은 여인과 일곱 머리 열 벌과 일곱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12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발 아래에 달을,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해를 입은 여인과 일곱 머리 열 벌과 일곱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13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와 땅
 에서 올라온 두 뿔을 가진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666)와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묘사되었다.



프랑스 성경(La sainte Bible en Francois, 1530)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두 뿔을 가진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와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묘사되었다.



계시록 13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두 뿔을 가진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666)와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묘사되었다.



계시록 13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벌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를 클로즈업한 것이다.



라마수(Lamassu) 석상(넬루드 출토, 대영박물관 소장).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721-705 BC) 궁전 코르사바드(Khorsabad)의 수호신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약 4천년 전에 등장한 아시리아 제국 도시의 성문이나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황소 몸체에 세쌍의 날개와 사람의 두상을 가진 이 라마수는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다리우스 대왕의 수사 궁전의 스피нк스(480 BC, 루브르)
 사자 몸체에 세쌍의 날개와 사람의 두상을 가진 이 스피нк스는 페르시아의 수호신이자 다리우스 대왕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이며 바람(풍)의 신이자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두크(Marduk)가 혼돈(흙암)과 바다의 여신이자 바다의 요인
티아마트(Tiamat)를 버락으로 공격하는 바벨론의 부조(대영 박물관)



이집트의 신 아문(산양) ^별이 달린 알렉산더 대왕과 아문-제우스.
알렉산더는 아문 또는 아문-제우스로 불렸다. 다니엘서 7-8장에 나오는
^별과 계시록 13장, 17장의 ^별이 신성을 참칭하는 제왕들을 상징한다.

“그 짐승(우상, 적그리스도)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황제)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888=예수(복음, 승리, 구원)



777=야훼(거룩거룩거룩=완전완전완전)

666=율법, 피조물, 우상, 거짓(부족부족부족=죄죄죄)

Nron Qsr

The Greek version of the name and title [transliterates](#) into [Hebrew](#) as נרון קסר, and yields a numerical value of 666,^[44] as shown:

<i>Resh</i> (ר)	<i>Samekh</i> (ס)	<i>Qoph</i> (ק)	<i>Nun</i> (נ)	<i>Vav</i> (ו)	<i>Resh</i> (ר)	<i>Nun</i> (נ)	Sum
200	60	100	50	6	200	50	666

Nro Qsr

The Latin version of the name drops the second *Nun* (נ), so that it appears as *Nro* and [transliterates](#) into [Hebrew](#) as נרו קסר, yielding 616:

<i>Resh</i> (ר)	<i>Samekh</i> (ס)	<i>Qoph</i> (ק)	<i>Vav</i> (ו)	<i>Resh</i> (ר)	<i>Nun</i> (נ)	Sum
200	60	100	6	200	50	616

‘네로=666’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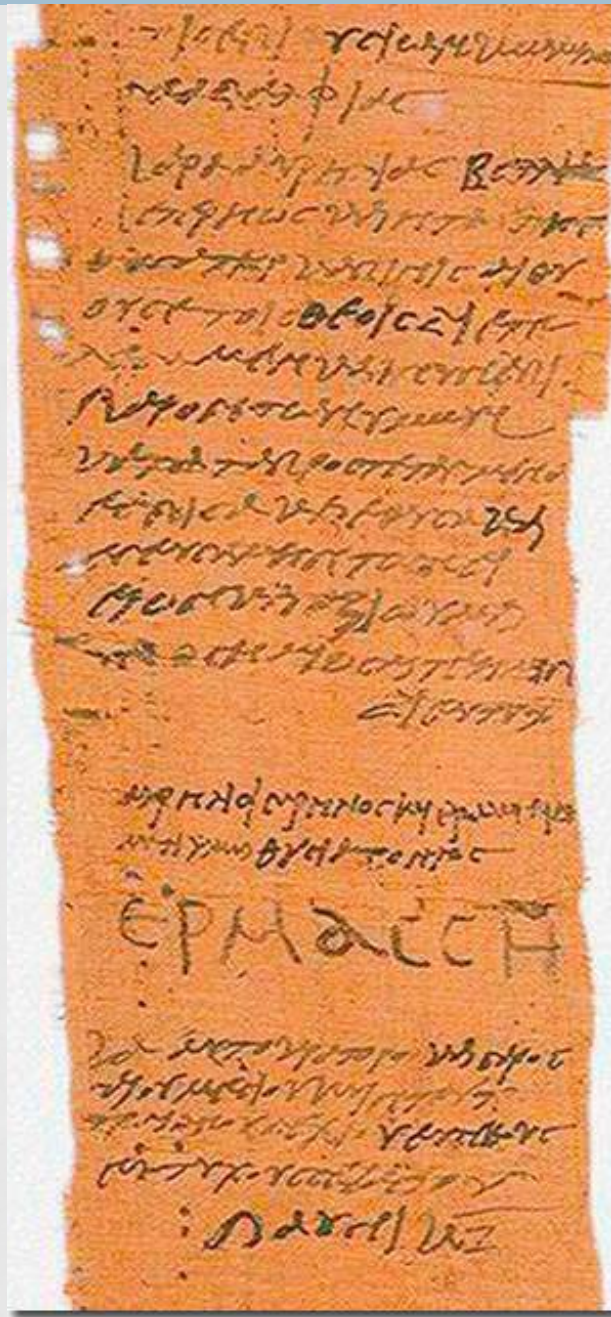
- 계시록의 독자들은 대다수가 헬라인들이었다.
- 계시록은 95-96년경에 헬라어로 쓰였다.
- 네로는 68년(30세)에 자살하였다.
- 도미티아누스(96년 45세 때 암살)가 박해자 네로의 환생으로 여겨졌더라도 666이란 숫자를 히브어 이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 네로의 공적인 칭호는 Nero Claudius Caesar Augustus Germanicus였다.



주전 54년에 주조된 금화

전면에 "아그리피나 아우구스투스 신성 클라우디우스 네로 케사르 가족 어머니"
(AGRIPP AVG DIVI CLAVD NERONIS CAES MATER)라고 새겼고,
뒷면에 "네로 클라우디우스 신의 아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황제
공화국의 권력" (NERONI CLAVD DIVI F CAES AVG GERM IMP TR P)
이라고 새겼고, 중심에 "원로원의 법령에 의해서" (EX S C)라고 새겼다.

짐승의 표?



데키우스(Decius)가 발행한
리벨루스(libellus, 250년)
[내용]테아델피아 마을의 제사장을
관장하는 자들에게, 페테레스의
딸 아우렐리아 벨리아스와
그녀의 딸 카피니스로부터: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들
에게 제사를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절차를 따라 관제를
벗고 제사를 드렸으며, 신성한
예물을 맛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증서에 서명해
주시길 것을 요청합니다.
[서명]우리 아우렐리우스 세레누스와
아우렐리우스 헤르마스는 고대들이
제사 바치는 것을 보았노라. 헤르
마스 본인에 의해서 서명하다.
황제 카이사르 가이우스 메시우스
퀸투스 트라야누스 데키우스 피우스
펠릭스 아우구스투스 1년, 아우니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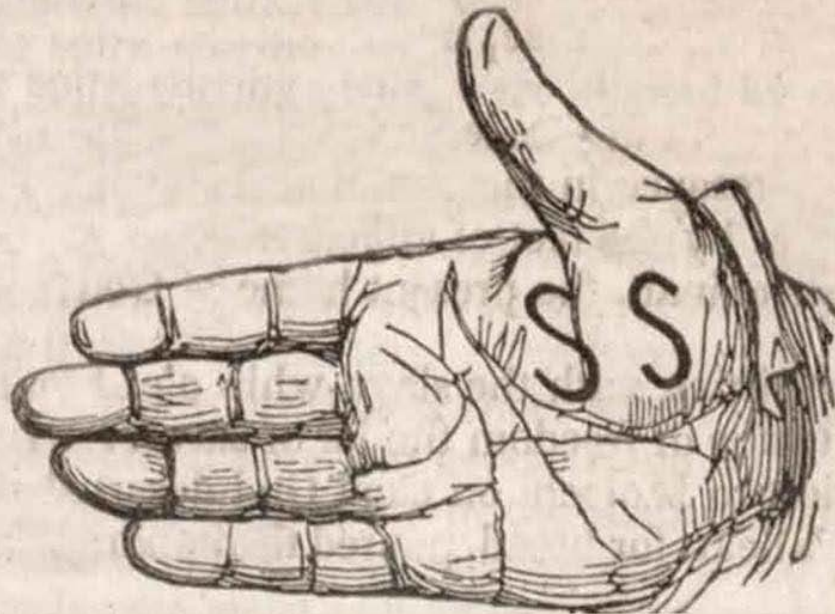


조나단 워커(Jonathan W. Walker)와 SS(Slave Stealer, 노예 도둑)
낙인이 찍인 그의 오른손 사진(Daguerreotype by Southworth &
Hawes, 1845.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소장).
프랑스인 루이 다게르(Louis Daguerre, 1787-1851)가 개발해 1839년
1월 7일 공표한 은판사진법(Daguerreotype)으로 1845년에 촬영되었다.
선장이었던 워커는 2명의 도망 노예들을 태워 비행마로 보내려다가
1844년 7월 8일 플로리다 최남단 키즈에서 노예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UNDERGROUND RAIL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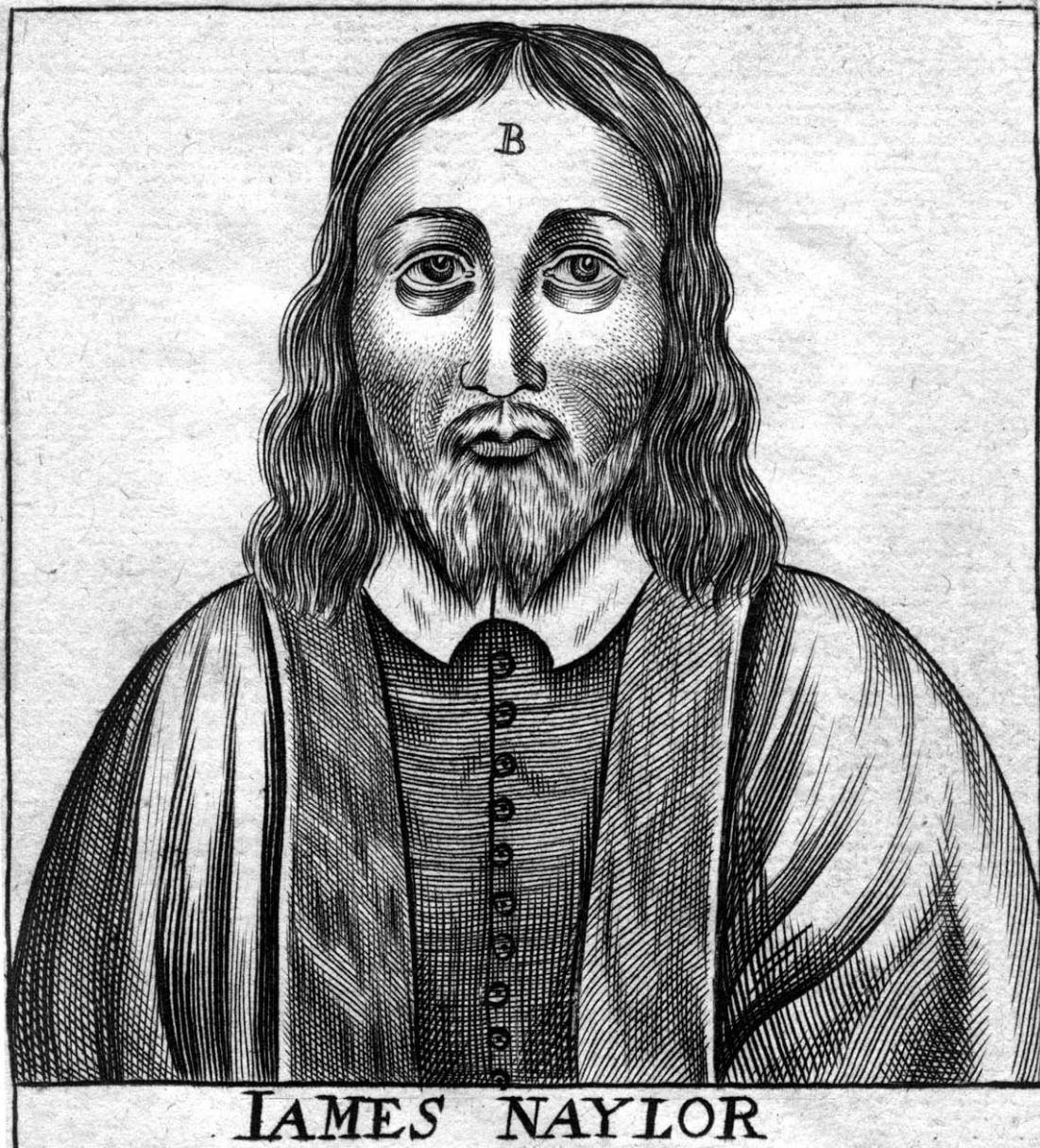
SYMBOLS

THE BRANDED 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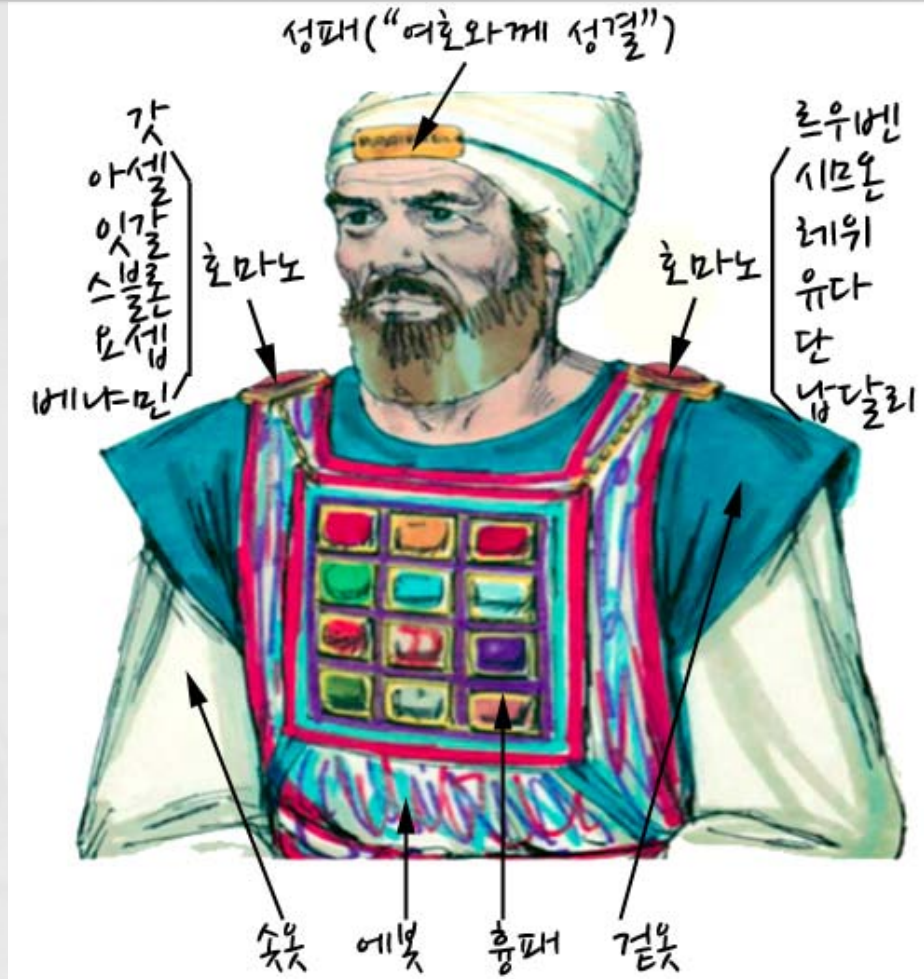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의 묘에 낙인을 찍었던 분갈이 도구



1656년 초기 퀘이커교도인 제임스 네일러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영국의회로부터 형벌의 일부로 이마에 '신성 모독' (blasphemy)이라는 글자 'B' 낙인을 받았다(판화, 17세기).

야훼의 표(777), 그리스도의 표(888), 짐승의 표(666)



(출 28:38)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겔 9:4, 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
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
까이 하지 말라...

(계 7:3)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
라 하더라.

(계 9:4)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
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 13:16) 그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
게 하고,

(계 14:1)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 14:9)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 17:5)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계 22: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14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를 묘사하였다.



계시록 14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온산에 선 144,000명과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와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묘사하였다.



계시록 14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를 묘사하였다.



계시록 16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일곱 대접 재앙의
환상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16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에게 내리는" 일곱 번째 대접재앙(17-21절)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16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일곱 대접재앙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17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일곱 머리 열 벌 짐승을
탄 큰 성 바벨론의 큰 음녀를 묘사하였다.



계시록 17장(Luther의 신약성서, 152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CRANACH, Lucas the Elder의
공방에서 만든 계시록의 삽화 2장 가운데 하나이다. 일곱 머리
열 벌 짐승을 탄 큰 성 바벨론의 큰 음녀의 머리에 삼중관을 씌웠으므로
음녀가 가톨릭 교황이라는 점을 암시하였다.

루터 시대(독일)에 교황
을 음녀로 봤다는 정황

The Pope's triple crown, with VICARIUS FILII DEI,
the Roman numerals adding up to 666



교황 그레고리 16세(Gregory XVI, 1831~1846)의 삼중관.
상층에는 "VICARIUS", 중층에는 "FILII", 하층에는 "DEI"라고 새겨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했다.



1871년 벨지움에 의해 교황 비오 9세에게 바쳐진 삼중관,
라틴어로 상층에 CHRISTI VICARIO(그리스도의 대리자 . Christ's Vicar),
중층에 IN TERRA(땅 위에 . On Earth), 하층에 REGVM(왕들 . Kings)이라고 새겼다.



계시록 17장 1-18절(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큰 바벨론의 큰 음녀가 일곱 머리 열 벌 짐승을 탄 모습이다.



계시록 17장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Anthuenis claei-
 ssins (Flemish, 1536-1613)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큰 바벨론의 큰 음녀가 일곱 머리 열 벌 짐승을 탄 모습이다.



계시록 17장 1-18절 (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큰 바벨론의 큰 음녀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탄 모습이다.



계시록 14, 18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 불에 타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18-19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주의 재림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18-19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주의 재림을 묘사하였다.



게시록 19장(Hortus Deliciarum, c. 1180)
12세기의 수녀 Herrad von Landsberg가 독일어와 라틴어로
필사한 중세기 최초의 백과사전(Hortus deliciarum,
즐거움의 정원)에 담긴 그림이다. 큰 성 바벨론의 음녀와
두 짐승이 붙잡혀 불못에 던져지는 환상을 묘사하였다.



게시록 19장(Luther의 신약성서, 152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CRANACH, Lucas the Elder의
공방에서 만든 계시록의 삽화 2장 가운데 하나이다. 큰 성 바벨론의
음녀와 두 짐승이 붙잡혀 불못에 던져지는 환상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20-21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는 것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20-21장(Albrecht Durer, 1496)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Albrecht Durer의
작품이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마귀를
결박해 무저갱에 가두는 것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20-21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는 것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20-21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는 것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였다.



원형과 실체로써의 신약교회(복음과 십자가)
비잔틴제국의 주화(10세기말 11세기초): 예수님의 동안에 십자가 후광을,
가슴에 복음서를 새겼고,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왕중의 왕"이라고 새겼다.

재림 주(Adventus Augustus) 왕들의 왕 그리스도



비잔틴시대의 주화(미카엘 4세, AD 1034-41)
전면에 왼손으로 복음서를 안고, 오른손으로 강복하시는 예수님을 새겼고,
좌측에 예수(IC)를, 오른쪽에 그리스도(XC)를 새겼으며,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IC XC NIKA)라고 새겼다.

재림 주(Adventus Augustus) 승리자 그리스도



하드리아누스 황제(AD 117-138)의 로마 도착 주화
 전면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두상을 새겼고, 둘레엔 HADRIANVS AVGV
 COS III P P(하드리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집정관 3회, 국부)라고 새겼다.
 뒷면엔 하드리아누스(우측)가 로마(좌측)와 손을 잡는 모습을 새겼고,
 둘레엔 ADVENTVS AVGV(황제의 도착)이라고 새겼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AD 193-211) 황제의 로마 도착 주화
 전면엔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의 윗계관을 두른 두상을 새겼고,
 돌리에 SEVERVS PIVS AVG(경건한 세베루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말을 탄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실제로 로마에 입성하는
 모습과 흥분한 말을 군기를 든 군인이 제지하는 모습을 새겼다.
 돌리에는 ADVENTVS AVG(황제의 도착)이라고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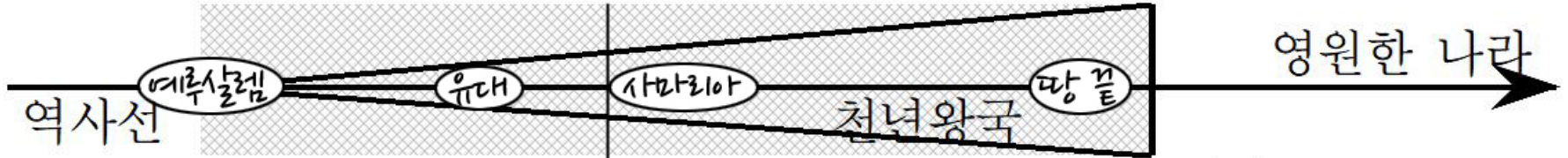
콘스탄티누스 대제(AD 310-312)의 런던 도착 주화
 정면에 갑옷 차림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CONSTANTINVS P(ius) F(elix) AVG(콘스탄티누스 경건하고 축복
 받은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말을 탄 콘스탄티누스가 왼손에
 창을 들고 있고, 오른손을 들어 환영인파에게 답례하는 모습을 새겼으며,
 오른쪽 앞발을 보린 말 아래에 잔그려 앉은 포로의 모습을 새겼다.
 또 말꼬리 부분에 새겼고, 하단에 런던에서 주조되었다는 표식인
 PLN을, 둘레에는 ADVENTVS AVGV(황제의 도착)이라고 새겼다.

믿음의 선한 싸움(갈 2:8, 행 28:31)

-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 그리스도교의 성공에는 강한 소명의식, 사명의식, 성령충만, 끈질긴 기도, 인내의 믿음, 낙관적 후천년설이 있었다.
-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흑암과 혼돈과 무(無)에서 출발하여 각종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점진적으로 성장 발전하여 완성에 이르는 후천년설적(postmillennial) 성공 스토리(success stories)이다.

초림 오순절

재림



5B.C. A.D.30

부활과 심판

전반부: 행 6:7(점점 왕성하여 수가 많아짐), 행 9:31(듣더니 서 가고 수가 많아짐)

주역: 베드로와 히브리파 사도들 유대인들에게만 전도 함.

사역 방법: 여행(순회 행진), 성령충만, 기도

추진동력(Pusing Power): 배척, 환란, 사두개인들과 사울의 박해

후반부: 행 12:24(흥왕하여 더함), 행 16:5(더 굳어지고 수가 더함), 행 19:20(흥왕하여 세력을 얻음), 행 28:31(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금하는 사람이 없음)

주역: 바울과 헬라파 동역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전도 함.

사역 방법: 여행(순회 행진), 성령충만, 기도

추진동력(Pusing Power): 배척, 환란, 헬라파(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로 인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함.

행 8:1,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행 8: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행 11:19,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마리아나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귀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 미합중국의 성공에는 사명의식, 소명의식, 개척정신, 낙관적 후천년설, 자유가 있었다.



- 우측 국장에서 흰머리수리가 부리에 “다수로부터 하나로”(E pluribus unum)라고 쓴 두루마리를 물고 있다.

- 좌측 국장 중앙에 황무지에 건설중인 피라미드와 그 위에 섭리의 눈이 있고, 하단에 미국 독립선언의 해인 “1776” 이란 숫자가 라틴어 문자 “MDCCLXXVI”로 새겨져 있다.
- 국장은 통일, 자유, 독립, 개척정신의 상징으로써 1782년에 제정되었다. 국부들은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1776년 13개 주를 통일하여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미합중국을 건설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국민들이 하는 일들을 ‘섭리의 눈’으로 보살펴 주시고 (ANNUIT COEPTIS: favorable to our undertakings), ‘새 천년시대의 새 질서’ (Novus Ordo Seclorum: New Order of Ages)를 열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 18-19세기 미국의 성공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성공도 이 같은 통일, 자유, 독립, 개혁정신과 '새 천년시대의 선구자'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환원운동가들의 두 가지 확신

-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미완으로 끝난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완성시키시려고 환원(신약성경교회)운동을 전령(Christian Messenger)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 그들은 이 확신 속에서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를 자임하면서 그리스도교 일치운동과 신약성경(사도전통)교회 회복운동(Restoration Movement of the New Testament Ancient Order of Things)을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펼쳤다.

THE

CHRISTIAN MESSE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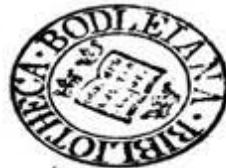
AND FAMILY MAGAZINE;

DEVOTED TO THE

DISSEMINATION OF PRIMITIVE CHRISTIANITY.

ENLARGED SERIES:

VOL.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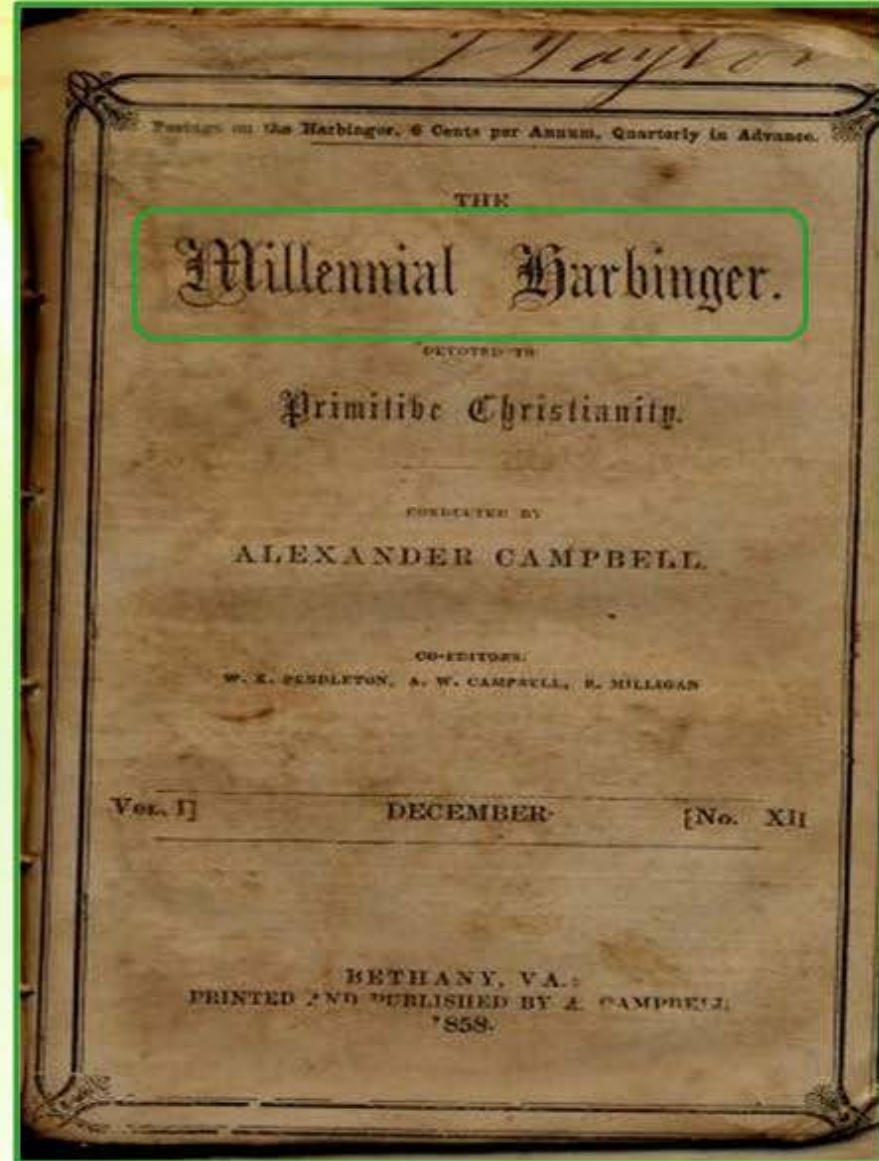


LONDON:

PUBLISHED BY SIMPKIN MARSHALL AND CO.,
STATIONERS' HALL COURT;

AND MAY BE HAD OF THE BOOKSELLERS IN ANY PART OF ENGLAND,
IRELAND, SCOTLAND, AND WALES.

1846.



-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배도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 역시 후천년설적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다.
-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천년시대를 여시기 위해 서 일군으로 전령으로 또는 선구자로 부르셨고, 그 귀한 사역을 위해 세상에 보내셨으며, 나의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섭리의 눈으로 보살피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 그리고 성령충만, 끈질긴 기도, 인내의 믿음으로 뚜벅뚜벅, 마치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초가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혹은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순례했듯이, 전진해나가는 것이다.